

디스플레이·반도체에 車까지… 中 굴기위협 현실로

LCD 점유율 절반 중국에 빼앗겨
삼성D·LGD, 구조조정 실시·전망
스마트폰용 올레드 패널 점유율
작년 95%→올 82%로 13%p↓
“올레드, LCD와 같은 운명 맞을 것
노동생산성 심각…대책 마련 시급”



리처드 유 화웨이 컨슈머 비즈니스 그룹 CEO가 IFA 2019에서 기린 990을 소개하고 시스템 반도체 부문 높은 기술력을 과시했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무역분쟁으로 주춤했던 반도체 굴기도 다시 시작됐다. IFA 2019에서 화웨이는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5G 통합 SoC인 기린 990을 내놨다.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듀얼로 구성해 성능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 웰컴·삼성전자와 정면 경쟁을 선언한 셈이다.

메모리반도체 양산 작업도 재개했다. 중국 청화유니그룹 산하 YMTC는 최근 64단 3D 낸드플래시 기반 256기가 바이트급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업체가 양산을 시작한 128단에 비하면 3년 이상 뒤쳐진 기술이지만, 내년에는 바로 128단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해 국내 산업계 위기 의식을 부채질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한중간 기술력 차이는 디스플레이가 1~2년, 전체적으로 2~3년 정도로 아직은 거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한국이 일본에서 주도권을 뺏어온 과정과 비슷하고, 당시에도 전환이 빠르게 진행됐던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노동 생산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임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생산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탓에 공장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반도체와 같이 생산성 자체가 경쟁력인 분야는 공장을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뺏기는 셈이 된다.

그 밖에 다양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 등도 부담거리다. 환경 보호 및 개발 제한에 공장 증설이 어려운데 더해, 정부 정책도 경영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경제인 단체가 적극적으로 재계 요구를 드러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동차와 가전 등 산업 부문에서도 중국의 공세는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베이징 1공장 가동을 멈추고, LG는 베이징 트윈타워를 매각하는 등 현지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국내 산업계가 ‘중국 굴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주변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디스플레이 2개사는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희망퇴직을 진행 중인 가운데, LG디스플레이도 희망퇴직을 준비 중이다.

구조조정 이유는 LCD 패널 생산라인 정리다. 국내 업계는 최근 LCD 패널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에 고전해왔다. 결국 점유율 절반을 빼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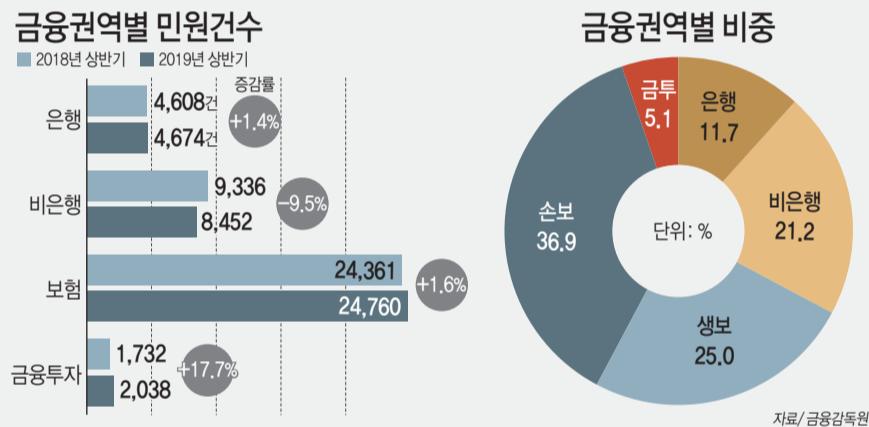
고, 수익률도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LCD 사업 정리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LCD뿐이 아니다. IHS 마킷에 따르면 2분기 스마트폰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은 82%에 불과했다. 전년(95%)보다 무려 13% 포인트나 떨어졌다. 중국 BOE가 점유율 12%를 넘어선 영향이 크다.

대형 올레드 기술력도 중국은 상당

수준으로 올라섰다. 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IFA 2019에서는 중국 스카이웍스 자회사인 독일 메츠가 세계 2 번째로 8K 올레드 개발 사실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올레드 기술 격차는 1~2년 남짓으로 줄여진 상태”라며 “제어나 처리 기술 차이가 여전히 크긴 하지만, 올레드도 멀지 않아 LCD와 같은 운명을 맞게될



상반기 금융투자 민원 2038건, 18% ↑

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 장애 탓
금감원, 비은행권은 9.5% 줄어

모바일 주식매매 전산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금융투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금융민원은 3만99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다소 엇갈렸다. 비은행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반면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에서는 민원이 늘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20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다. 내부통제·전산 유형 및 주식매매 유형은 늘고, 나머지 유형은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월 KB증권, 5월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대형사의 주식매매 전산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보상 요구성 민원이 200건이 넘게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은 지난 2월 말에 제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일시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았다. 정상회담 결렬로 매도주문이 쏟아졌지만 KB증권 투자자들은 전산장애로 주식을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역시 지난 5월 초 홈트

레이딩시스템(HTS)과 MTS에서 일부 접속장애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은행 민원은 46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 관련 인터넷·폰뱅킹 유형, 고객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열람했다는 주장 등 개인신용정보 유형의 민원이 늘었다.

생명보험 민원은 99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상품 설명 불충분 등 보험모집 유형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크게 증가했지만 나머지 유형의 민원은 감소했다. 비중은 보험모집이 44.1%로 가장 커고 ▲보험금 산정·지급 19.9% ▲면부책 결정 10.8%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 민원은 1만47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다.

특히 자동차·치아보험 등에서 보험금 산정·지급 유형 중심의 민원이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은 작년 상반기 2680건에서 올해 상반기 2806건, 치아보험은 작년 상반기 230건에서 올해 상반기 356건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지급심사 강화 및 산정 분쟁 증가, 치아보험 집중판매 후 면책 기간(2년) 경과에 따른 보험금 청구 증가와 함께 민원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中 물량 공세에… 구조조정 나선 디스플레이

삼성D, 7년만에 희망퇴직 실시
LGD, 작년 1분기이어 추가 명퇴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8.5세대 OLED 공장 전경

디스플레이 업계가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축에 나선다. 중국 업체의 물량 공세로 LCD 수익성 악화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에는 최근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희망퇴직 실시는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대상은 5년 차 이상 생산직 및 사무직이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업계 평균 이상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디스플레이에는 올해 1분기 5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2016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2분기에는 75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중소형 OLEd 핵심 고객사가 지급한 일회성 보상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LG디스플레이도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다. 이달 중 접수를 받아 다음달 퇴직을 실시할 전망이다. 구조조정에 관한 희망퇴직 시기, 대상 연차, 위로금 등 규모 등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

용을 담은 글이 퍼지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현재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며,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에는 지난해 1분기 6년 만에 영업손실을 내자 9월 LCD 라인 생산직 사원 3000여 명을 희망퇴직을 통해 내보낸 바 있다. 올해의 희망퇴직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LG디스플레이의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는 5007억원에 달한다. 앞서 LG디스플레이에는 올해 2분기 기준 실적에서도 매출 5조3534억원, 영업손실 3687억원을 기록했다. LCD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OLED 전환에 따른 지출 증가로 매출은 5% 줄었고, 영업손실은 61.6% 급증했다.

있다. 운용사가 60개 이상 은행·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펀드 판매 자격을 부여하는데 사모펀드는 가입자수가 제한돼 한정된 곳에서 판매된다.

사모펀드에 가입하려면 해당상품을 파는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 금융상품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만기가 없는 상

중국 업체들은 점차 LCD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 기업을 제치고 LCD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BOE를 비롯해 폭스콘, CSOT 등 중국 업체들은 잇따라 10.5세대 LCD 공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LCD 사업을 축소하고 OLED로의 사업 재편에 나선다. 삼성디스플레이에는 충남 아산 탕정 8세대 LCD 생산라인을 LCD에 퀸텟닷(GD)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QD-OLED 생산 설비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에는 지난달 파주 P10 공장의 10.5세대 OLED 패널 생산라인에 3조원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지난달 양산을 시작한 중국 광저우 8.5세대 OLED 라인과 함께 OLED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에선 올해 4분기 중 파주 8.5세대 공장 대형 LCD 패널을 생산하는 P7과 P8 라인 일부 생산능력을 감축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BOE, 폭스콘 등 중국 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낮은 가격으로 OLED 확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인력 감축을 시작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사모펀드, 가입자수 제한에 ‘한정판매’

» 1면 ‘슈퍼리치만의 리그…’서 계속

부동산 펀드의 경우, 약 6%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주식 대안 상품으로 많이 찾는다는 분석이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도 2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돼

풀도 있는 반면 2년·4년·5년 등으로 만기가 정해진 상품도 있으며, 수익률도 손실에서 높은 수익률까지 천차만별이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관계자는 “해지 펀드에 가입할 때 언제든지 자금 설정이 가능한 추가형인지, 언제든지 환매 가능한 개방형인지 아니면 환매 불가능한 폐쇄형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체윤정 기자 echo@